

2019년 5월 3일

# 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## 미 증시,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하락 지속 국제유가도 하락세 지속하며 상품시장 변동성 확대

### 주요 변수 변화

미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하기도 했으나, 에너지 및 일부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. 특히 국제유가 급락하는 등 상품시장 약세 여파로 관련 기업들이 하락 주도. 다만, 반도체 및 금융주가 반등하자 낙폭 축소(다우 -0.46%, 나스닥 -0.16%, S&P500 -0.21%, 러셀 2000 +0.40%)

최근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모습. 이런 가운데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및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을 언급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을 매파적으로 해석. 이후 주요 증시는 부진한 모습. 오늘도 한때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으나, 여전히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가 지속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.

여기에 최근 이란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한 때 65 달러를 넘어섰으나,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유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발언을 한 이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. 오늘도 2.8% 하락하며 62 달러를 하회. 여전히 이란과 베네수엘라 정치 불확실성이 높지만,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를 감안 공급감소 우려를 상쇄했기 때문. 더 나아가 이란 제재 개시 이후 아시아 정유사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더 많은 원유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향후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.

이렇듯 주요 변수들이 변화하고 있음. 이 영향으로 금융시장 또한 에너지 및 주식시장은 조정을,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하는 등 최근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. 이 영향력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.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및 이란 제재 결과, 미-중 무역협상 등 주요 이벤트가 다음주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

S&P500 일중 차트

지수	Close	D-1
KOSPI	2,212.75	+0.42
KOSDAQ	760.38	+0.75
DOW	26,307.79	-0.46
NASDAQ	8,036.77	-0.16
S&P 500	2,917.52	-0.21
상하이종합	3,078.34	휴장
일본	22,258.73	휴장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	Close	D-1	지수	Close	D-1
홍콩恒生	29,944.18	+0.83	영국	7,351.31	-0.46
독일	12,345.42	+0.01	프랑스	5,538.86	-0.85
스페인	9,418.20	-1.59	그리스	775.16	+0.25
이탈리아	21,710.38	-0.78			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### 반도체 업종 강세

텍사스인스트루먼트(+1.01%), 마이크론(+1.58%) 등과 AMAT(+0.74%), 램리서치(+1.41%) 등 반도체 관련주는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부양정책 언급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.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11% 상승 했다. 테슬라(+4.31%)는 주식, 채권 통해 23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. 실적 발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우 듀폰(-6.11%), 켈로그(-3.38%), 시그나(-2.33%) 등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한 반면 퀄컴(+0.89%), 언더아머(+3.54%) 등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.

한편, 엑손모빌(-1.75%), 코노코필립스(-2.20%), EOG리소스(-2.96%)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했다. 알파벳(-0.58%), 페이스북(-0.26%), 아마존(-0.56%), MS(-1.31%), 애플(-0.65%) 등 대형 기술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.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길리어드사이언스(+0.66%)는 시간 외로 2% 가까이 상승 중이다.

#### 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(XOP)	-3.24%	대형 가치주 ETF(IVE)	-0.22%
에너지섹터 ETF(OIH)	-0.68%	중형 가치주 ETF(IWS)	+0.01%
소매업체 ETF(XRT)	+0.71%	소형 가치주 ETF(IWN)	+0.25%
금융섹터 ETF(XLF)	+0.11%	대형 성장주 ETF(VUG)	-0.15%
기술섹터 ETF(XLK)	-0.52%	중형 성장주 ETF(IWP)	+0.32%
소셜 미디어업체 ETF(SOCL)	-0.21%	소형 성장주 ETF(IWO)	+0.62%
인터넷업체 ETF(FDN)	-0.04%	배당주 ETF(DVY)	-0.18%
리츠업체 ETF(XLRE)	+0.19%	신흥국 고배당 ETF(DEM)	+0.29%
주택건설업체 ETF(XHB)	+1.03%	신흥국 저변동성 ETF(EEMV)	+0.18%
바이오섹터 ETF(IBB)	+0.40%	미국 국채 ETF(IEF)	-0.28%
헬스케어 ETF(XLV)	+0.43%	하이일드 ETF(JNK)	+0.06%
곡물 ETF(DBA)	+0.25%	물가연동채 ETF(TIP)	-0.41%
반도체 ETF(SMH)	+0.94%	Long/short ETF(BTAL)	+0.47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## 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470.54	-1.71%	-5.23%	-3.56%
소재	351.31	-0.54%	-0.89%	-2.03%
산업재	652.17	-0.13%	+0.61%	+1.37%
경기소비재	941.13	-0.03%	-0.79%	+2.52%
필수소비재	586.12	-0.10%	+0.95%	+2.75%
헬스케어	1,035.18	+0.47%	+1.47%	-2.38%
금융	461.70	+0.16%	+1.32%	+5.20%
IT	1,370.58	-0.54%	-0.95%	+2.87%
커뮤니케이션	165.53	-0.50%	-2.14%	+2.69%
유틸리티	293.75	-0.28%	-0.17%	+0.28%
부동산	223.49	+0.15%	+0.99%	-0.85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## 한국 주식시장 전망

### 종목 장세 전망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69% MSCI 신흥 지수 ETF 도 0.23% 상승 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910 계약) 여파로 0.60pt 하락한 286.25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65.9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전일 매파적으로 해석된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. 여기에 국제유가 또한 변동성을 확대하며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된 모습이다.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시장이 휘둘리는 '웍더독'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. 이런 경향은 9 일(목) 옵션만기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특히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수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.

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는 달러/원 환율 변화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. 오늘도 달러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고용보고서 및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, 블라드, 카플란, 데일리 등 지역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어 달러화 변화가 확대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.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개별 업종별 변수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는 종목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.

## 주요 경제지표 결과

### 1 분기 미국 생산성 QoQ +3.6%

4 월 뉴욕주 기업환경지수는 전월(66.9) 보다 개선된 77.3 으로 발표되는 등 2 개월 연속 상승 했다. 한편, 1 분기 미국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3.6% 증가해 예상을 크게 상회 했다. 한편,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0.9% 감소 했다.

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 만 건으로 지난 주 발표와 동일 했다. 다만 시장 예상치인 22 만건을 하회했다.

3 월 독일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.2% 감소 해 지난달 발표치(mom +0.5%)를 하회했으나, 예상치(mom -0.5%)를 상회했다. 4 월 이탈리아 제조업 PMI 는 전월(47.4)를 크게 상회한 49.1 로 발표돼 경기 침체를 완전히 넘어선 것으로 추정 된다.

## 상품 및 FX 시장 동향

###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

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미국의 산유량이 하루 1,230 만 배럴을 기록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. 더불어 아시아 주요 정유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공급측 변수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갔다. 이와 함께 트럼프가 연안 유전 굴착 관련 규제를 완화 시켰다는 소식도 향후 미국 산유량 급증 우려감을 높인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.

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,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. 한편, 유로화는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. 다만, 그 폭은 제한되었다. 파운드화는 BOE 통화정책 회의 결과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(1.2%→1.5%) 했으나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.

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. 유로존 4 월 제조업 PMI 가 예상보다 약간 개선되었다는 소식 등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. 더불어 고용보고서 발표 및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등 금리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특징 이다.

금은 달러 강세 및 상품시장 약세 여파로 하락 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61.81	-2.81	-5.21	Dollar Index	97.831	+0.15	-0.38
브렌트유	70.75	-1.98	-3.91	EUR/USD	1.1174	-0.20	+0.38
금	1,272.00	-0.95	-0.60	USD/JPY	111.5	+0.11	-0.12
은	14.617	-0.76	-2.29	GBP/USD	1.3033	-0.13	+1.04
알루미늄	1,816.00	+0.06	-2.21	USD/CHF	1.0195	+0.14	-0.08
전기동	6,167.00	-1.09	-3.11	AUD/USD	0.6999	-0.23	-0.23
아연	2,731.00	-1.44	-0.36	USD/CAD	1.3470	+0.18	-0.11
옥수수	370.50	+0.54	+3.71	USD/BRL	3.9604	+1.06	-0.79
밀	444.00	+1.83	+0.57	USD/CNH	6.7472	+0.21	-0.04
대두	843.25	-1.00	-3.38	USD/KRW	1165.70	-0.21	+1.29
커피	91.55	+0.49	-1.93	USD/KRW NDF1M	1165.99	+0.11	+0.64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2.543	+4.33	+1.07	스페인	0.994	-0.40	-9.40
한국	1.890	+4.50	-2.20	포르투갈	1.108	-0.40	-7.50
일본	-0.040	0.00	-0.90	그리스	3.332	-2.60	+4.70
독일	0.030	+1.70	+3.90	이탈리아	2.550	-0.40	-13.80